

서정인 문학번역의 문제점*

김 경 희
(한양대학교)

목 차

서 론

1. 자유간접화법
2. 판소리체
3. 말장난
4. 반복
5. 외래어 사용 회피

결 론

서 론

서정인¹⁾은 초기의 작품 『강』등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설을 쓰는 작가로 알려졌으나 『철쭉제』로부터 특별한 작가로 변모하기 시작하여, 『달궁』이나 『붕어』 등에서는 고전적인 소설의 형식을 탈피해서 실험적인 문체와 소설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1980 년대의 한국사회를 비판한 『달궁』이나, 권력과 세태를 풍자한 『붕어』 등을 읽어본 독자라면 소설의 소재의 독특함 때문이 아니라, 소설형식의 독특함 때문에 그가 특별한 작가라는 것을 쉽게 납득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02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1) 서정인은 1962년 「후송」으로 사상계사 신인상에 당선되어 등단, 『강』, 『철쭉제』, 『달궁』, 『붕어』등을 발표하였고, 중·단편집 『베네치아에서 만난 사람』으로 제1회 김동리 문학상과 대산문학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서정인은 “소설이 작가가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독자의 몫이 있는 범
인테, 이 독자의 몫이 작가의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그는
『달궁』의 서문²⁾에서 자신의 소설이 “독자의 긴장에 의해서 완성되기를 희망한
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서사전략 때문에 독자들이 그의 소설을 난해
하다고 느끼는 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서정인의 문학 작품, 『달궁』과 『베네치아에서 만난 사람』
을 번역하면서³⁾ 실제로 부딪힌 문제들을 문체적 특징에 따라 분류해서 살펴보
려고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른 문학 작품들의 번역과정에서도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특별히 『달궁』이 가지고 있는 문체적 특징 때문에 더욱
더 크게 부각되는 문제점들이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달궁』과 『베네치아에서 만난 사람』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달궁』은 총 3권으로 된 연작형식의 소설로 300여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
져 있다. 각각의 에피소드는 고유의 의미와 리듬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담고 있는 사건들은 연대순으로 전개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고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한 명의 서술자가 등장하는 전
통적인 소설과는 달리 각 에피소드마다 화자가 다르다. 예를 들어 한 사건에
대한 서술이 여러 에피소드에 걸쳐 기술되는데, 그 에피소드의 화자에 따라
같은 사건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 제시된다.

『베네치아에서 만난 사람』⁴⁾은 1994년부터 1997년 사이에 발표된 중편과 단편
들을 모아 만든 중·단편집으로 역시 작가의 ‘독자의 몫을 남기겠다’는 철저한
전략 하에서 쓰여진 난해한 작품이다. 중·단편들의 시대적 배경으로는 1948년
에서부터 오늘날까지에 이르며 공간적 배경으로는 여수, 순천지역, 전라도와 도
시지역, 그리고 유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렇기에 일제 해방이후의 한국의
현대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서정인의 문체적 특징은 자유간접화법, 판소리체, 말장난, 반복, 외래어 사용
회피 등인데⁵⁾, 이러한 문체적 특징들을 갖는 서정인 작품들을 번역하면서 어떤

2) 서정인, 『달궁 하나』, 민음사, 1988.

3) 『달궁 하나』는 2001년 프랑스 Seuil 출판사에서 출판되었고 『베네치아에서 만난 사람』
은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 준비중이다.

4) 『베네치아에서 만난 사람』에는 5개의 중·단편들이 실려있다 : 「무자년의 가을 사흘」,
「잠적」, 「치과의사의 죽음」, 「생일」, 「베네치아에서 만난 사람」

문제에 부딪혔으며 어떻게 번역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⁶⁾

1. 자유간접화법

서정인은 우리에게 낯설은 자유간접화법을 자주 사용한다. 간접화법에 비해 자유간접화법이 문장을 조금 더 가볍고 속도감 있게 만들지만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자칫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서정인의 “소설이 작가가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독자의 몫이 있다”는 생각을 고려해 우리는 독자의 이해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작가의 의도를 존중해 주었다. 다음의 예문은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자유간접화법의 경우로, 주인공 인실이가 서술을 하면서 제 2의 화자인 남편과의 대화를 자유간접화법으로 옮긴 것이다 :

남편은 내가 다시는 안 오는 줄 알았다. 그가 훌쩍거렸다 그는 내가 아조 가 버린 줄 알았다. 사실 나는 아조 가 버릴라고 했다. 왜 내가 아조 가 버리지 않
았냐? 가 버릴 테가 없었다. 그동안 내가 어디 갔었냐? 집에서는 언제 나왔냐?
끼니는 굶지 않았냐? 집은 약속한 대로 지난 토요일 밤에 나왔다. 밥은 안 굶었
다. 일주일 동안이나 내가 어디서 뭘 했냐? 어디 있었냐? 길거리에서 거지영감
도 만나고 고향에 가서 부모형제도 만났다. (『달궁』, 87쪽)

Mon mari avait pensé que je ne reviendrais plus jamais. Il sanglotait parce que j'étais partie pour toujours. Et c'est vrai que mon intention avait été de partir définitivement. Pourquoi ne l'avais-je pas fait ? Je n'avais nulle part où aller. Où avais-je été pendant tout ce temps-là ? Quand étais-je sortie de la maison ? Je n'avais pas sauté de repas au moins ? Comme promis, j'avais quitté la maison la nuit, le samedi d'avant. Je n'avais pas sauté de repas. Qu'est-ce que j'avais fait pendant une semaine ? Où avais-je été ? J'avais rencontré un vieillard dans la rue, j'étais allée dans mon village natal et j'avais retrouvé mes parents, mes frères et sœurs.

- 5) 서정인 문학의 또 다른 문체적 특징인 ‘해학과 아이러니’는 문학적인 접근이 필요해서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였고 작품 전반에 흐르는 작가의 고향의 언어, ‘전라도 사투리’는 번역에서 살려줄 수 없었다.
- 6) 본 논문은 프랑스학회 동계학술대회(2001년)에서 기획발표, 번역문학연구소 주최 한국 문학번역 학술회의(2002년)에서 발표한 내용을 발전시킨 것임.

(Talgung, p. 103)

위 예문의 경우는 자유간접화법으로 번역하더라도 이해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여 직접화법으로 번역하지 않았다. (“Pourquoi ne l’as-tu pas fait ?”, “Où étais-tu pendant tout ce temps-là ?”, “Quand es-tu sortie de la maison ?”, “Tu n’as pas sauté de repas au moins ?” 등으로)

다음의 예문은 조금 더 복잡한 구조로, 주인공 인실이가 서술을 하면서 제 2의 화자인 남편과 제 3의 화자인 시어머니가 주인공 자신에 대해 나누는 대화를 자유간접화법으로 옮긴 것이다 :

내가 집을 약속대로 토요일 밤에 나온 것은 그도 알고 있었다. 그는 그 밤을 새우고, 날이 밝자 첫차로 집에 달려갔다. (중략) 지금 아버지는 어디 기시오? 그의 외삼촌한테 갔다. 본서 정보과에 있는 어무니 친정 사촌동생 말이요? 달아난 년을 잡아야 하지 않겠나? (중략) 아버지가 그한테 오실라고 현다는 것은 무슨 말이다요? 어제 땡겨간 그가 보고 싶었는 잡다. (『달궁』, 90-91쪽)

Il savait que j’étais partie de la maison samedi soir comme promis. Après avoir passé une nuit blanche, dès l’aube, il s’était dépêché de revenir chez lui par le premier train. (...) Où était son père?... Voir son oncle. Le cousin maternel qui travaillait au service de renseignement du commissariat de police?... Il fallait bien arrêter la fuyarde... (...) Et pourquoi son père avait décidé de venir le chercher? Peut-être par envie de revoir le fils qui était passé hier à la maison. (Talgung, pp. 106-107)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와는 달리,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지금 아버지는 어디 기시오?”나 “본서 정보과에 있는 어무니 친정 사촌동생 말이요?”라는 질문에서는 이것이 자유직접화법인지 자유간접화법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뒤에 나오는 “아버지가 그한테 오실라고 현다는 것은 무슨 말이다요?”에서 자유간접화법임이 명확히 보인다.

마지막 예문의 경우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 2의 화자인 이 경사가 서술자에게 하는 말과 전화통화를 통해 제 3의 화자에게 하는 말을 각각 자유간접화법과 직접화법으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

혼자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경찰관은 짜증을 내었오. 나는 그가 나하고 이야기 하는 틈틈에 전화를 받는 건지, 전화를 받는 틈틈에 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오. 짜증나기로 말하자면, 나도 마찬가지였오. 내 말을 못 알아들은 바는 아니지만, 습득물이나 도난품이 아닌 다음에야 말긴 사람한테 돌려줘야지 파출소로 가져오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을 모르다니,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여보 세요? 남파 차석 이경삼니다. 뭐요? 거기가 어디쯤이지요? 예. 예. 곧 직원을 보내지요. 말긴 사람을 모르다니, 그게 말이 되냐. 정신나간 소리가 아니냐. (『달궁』, 184쪽)

L'agent de police qui était seul au poste s'est mis en colère. Je ne pouvais pas savoir s'il me parlait en répondant au téléphone entre-temps ou le contraire. A vrai dire, j'étais moi aussi de mauvaise humeur. Il me comprenait, mais comme ce n'était ni un objet trouvé ni un objet volé, je devais chercher son propriétaire au lieu de venir à la police. Je ne savais pas qui était son propriétaire? Cela, il ne pouvait pas le comprendre. «Allô? Ici Lee, sergent adjoint au poste de police de la Porte du Sud. Quoi? Où est-ce situé? Oui, oui. Je vous envoie quelqu'un tout de suite.» Je ne savais pas qui m'avait confié cet objet? Était-ce compréhensible? Je disais n'importe quoi. (Talgung, p. 228)

2. 판소리체

서정인 문학의 특징의 하나는 판소리체의 문장이다. 판소리는 평민의 비극적인 삶을 희극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므로 우리 민족의 '한'의 정서를 잘 표현하며 특히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그러므로 서정인이 『달궁』에서 4·4조 판소리체를 자주 도입하는 것은,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전라도 지리산의 한 골짜기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라는 사실과 주인공 인실이의 한 맺힌 삶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작가는 등장인물들의 한 맺힌 사연을 이야기할 때는 어김없이 판소리체로 서술하는데 때로는 하나의 에피소드 전체를 판소리체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서술의 중간 중간에 판소리체를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같은 판소리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산문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운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작가의 의도를 조금이라도 더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운문으로 번역하였다. 아래의 예문은 주인공 인실이가 신세한탄을 하는 부분

인데 하나의 에피소드 전체가 판소리로 되어 있는 경우로 그 일부만 살펴보기로 하자 :

피아노

언감생심 내가 어디 피아노사 치겠느냐, 밀린 월급 준다 하니 감사하게 받을란다. 그러고는 이 고장을 떠났으면 쓰겠는디, 동서남북 다 살펴도 갈 만한 곳 노여 없다. 허긴 내가 언제라고 가는 데가 마땅했냐, 또, 갈 데가 마땅하면 아무라도 다 떠나냐. 오란 데가 없다하고 가는 길을 못 가겠냐, 오란다고 아무데나 안 갈 길을 떠나겠냐. 오갈 데를 묻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다... (『달궁』, 198쪽)

Piano

Comment l'audace aurais-je De jouer du piano? Puisque Kim m'a juré Qu'il me paiera mes mois De salaire en retard, Je les accepterai Avec reconnaissance. J'aimerais bien quitter Ce pays mais en fait Où que mon regard porte Je ne vois nulle part Où je pourrais aller. D'ailleurs jamais je n'ai Su où porter mes pas. Chacun partirait-il S'il savait où aller? Si nul ne nous appelle Faut-il abandonner L'idée de s'en aller? Et si l'on nous demande, Faut-il que l'on s'en aille Pour aller n'importe où? Ne m'interroge pas Sur ma destination... (Talgung, p. 247)

이 문장을 번역할 때 판소리 가락을 무시한 채 산문으로 번역한다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인공의 신세한탄을 완전하게 전달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은 서술의 중간에 서술자의 신세한탄이 판소리체로 표현된 것으로 이 경우도 앞부분의 산문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운문으로 번역하였다 :

어느 날 나는 군청에서 나온 나 또래의 어린 일본놈 주사한테 서툰 조선박치기 솜씨를 가르쳐 주고 미련없이 쾌관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허겠냐? 내가 일본 육사를 가겠냐, 대학생도 아닌디 학도병을 가겠냐, 그렇다고 남양으로 징용을 가겠냐? 고향집에 돌아와서 농사를 한번 지어 보는디, 뼈에 붙는 농사일이 서툰 사람 먼저 알고 사흘거리 잔상치요 닷새마다 몸살이라. 지게 지면 뒤뚱뒤뚱 지게목발 따로 놓고, 삼질이며 꿩이질에 도리께질 쟁기질이 어느 하나 고분고분 손에 붙는 일이 없다. (『달궁』, 154쪽)

Un jour, après avoir corrigé le messenger japonais de la sous-préfecture, un garçon de mon âge, en lui donnant maladroitement un coup de tête à la coréenne, j'ai quitté la mairie sans aucune hésitation. Qu'aurais-je pu faire après cela? Est-ce que j'aurais pu entrer à l'académie militaire japonaise, ou être étudiant mobilisé sans être étudiant? Sinon, aurais-je pu être réquisitionné pour les îles du Pacifique sud? Je suis donc retourné Au village natal Pour cultiver la terre. Mais par ma maladresse Dans cette rude tâche J'étais souvent souffrant Et plus souvent blessé. Avec ma hotte au dos, Je marchais chancelant, Sans savoir manœuvrer Le bâton d'appui. Au labour, à la pelle, Habile je ne suis, Ni à la pelle-pioche, Au battage au fléau, Ou bien à la charrue. (*Talgung*, pp. 186-187)

이러한 판소리 가락은 같은 민족끼리 서로 이념이 다르다고 하여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눈 우리 민족의 비극을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그린 「무자년의 가을 사흘」에도 나온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높은 사람이 온다고 역에 동원되어 지루한 연설을 듣고있던 아이들이 몰래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선생님에게 들켜서 얻어맞는 장면에서 아이들의 억울하고 창피한 마음을 판소리 가락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

그들은 가장 재미없는 수업보다 더 지루한 그의 긴 연설을 견디며 몸을 비비 꼬다가 헤어진 운동화 끝으로 땅바닥에 금을 긋고 옆엿동무 옆구리를 찌르며 킬 킬거리다 들켜서 무자비한 짝눈한테 솔뭇경 같은 손바닥으로 뒷덜미를 철썩 소리가 나게 얻어맞았다. 등짝이 얼얼하게 아프기도 하려니와, 동네방네 소문나고 웃음거리 놀림감에, 별명 빌미 될까보아 창피하고 분한 맘에 닭똥 같은 물방울 이 두 눈에서 떨어졌다. (「무자년의 가을 사흘」, 17쪽)

Et il fallait supporter son discours fleuve, plus ennuyeux que le moins passionnant des cours. Tous se tordaient, traçaient une ligne sur le sol du bout de leur chaussure de sports usée, perçaient les côtes de leur voisin et réprimaient un fou-rire. Mais si le cruel "un grand oeil-un petit oeil" les surprenait, ils recevaient un coup de sa paume sur la nuque, une paume aussi grande que le couvercle d'une marmite, si fort que le choc s'entendait ! Le dos les torturait aussi. Cette punition humiliante Leur faisait honte Si on le savait au village Quolibets, moqueries et surnoms s'ensuivraient Ils pleuraient à chaudes larmes.

서정인은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작가이다. 서구의 저질문화가 밀려들어와 아름다운 우리 문화와 전통적인 가치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이러한 그의 한국 문화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이해하면 왜 그의 소설이 판소리 문학의 전통을 이어받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문학을 번역할 때 판소리의 가락을 무시하고 산문으로 번역한다면 그의 문학의 핵심을 프랑스의 독자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되므로 충실한 번역이라고 할 수 없다.⁷⁾

3. 말장난

서정인은 사건이나 인물중심으로 전개되는 서사적 소설을 쓰기보다는 언어 자체가 이끌어 가는 소설을 쓴다. 그는 언어자체를 즐기고 언어를 놀이적 차원으로 표현함으로써 언어의 묘미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말장난을 번역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각 언어는 고유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나타내는 언어적 효과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언어로 된 말장난을 다른 언어로 옮겨서 똑같은 효과를 얻기는 힘든 일이다.⁸⁾ 일반적으로 말장난은 발음의 유사성이나 동형이의어에 근거한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말장난의 효과는 살리지 못하고 의미만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 예문의 경우는 발음의 유사성을 가지고 말장난한 것을 말장난의 효과는 살리지 못하고 의미전달만 하고 있는 예문이다 :

7) Sorbonne 대학의 Alain Genetiot 교수는 『Talgung』에 대한 서평(『한 프랑스 독자가 읽은 『달궁 Talgung』』, 『대산문화』6권, 2002, 101-103쪽)에서 “번역자들이 머리맡에서 함께 언급해 둔 바와 같이, 이 소설의 문체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야기가 갑자기 판소리의 서정적인 가락으로 넘어가는 대목은, 불어에서의 운문의 효과를 내도록 산문을 끊어 대문자로 처리함으로써 이야기에 어울리는 구술효과를 이 소설에 부여하고 있는데, 프랑스 독자로서 읽기에 그 부분은 아주 독창적이다.”라고 쓰고 있다. 판소리체와 프랑스어 운문체가 똑같은 문체적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그냥 산문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작가의 의도를 조금 더 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8) 김경희, 「문화차이의 번역에 관한 고찰」, 『불어불문학연구』제50집, 한국불어불문학회, 2002.

감? 감이라니? 감이 어디서 감히. (‘부자년의 가을 사흘’, 29쪽)
Kakis? Quoi? des kakis? Comment oser...des kakis?

의미전달을 위해서 주를 달아 설명적 번역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장발장은 착한 사람입니다.”
“장발족치고 악한 사람 없습니다.” (‘잠적’, 123쪽)
-...Jean Valjean était bien gentil...
- Quelqu’un avec des cheveux longs¹⁹ ne saurait être méchant...
19. jeu de mots «Jean Valjean» phonétiquement proche de «cheveux longs»
en coréen

아래의 예문은 ‘땀’과 ‘툼’ 사이에 존재하는 발음의 유사성과 의미의 대칭을 ‘éviter’와 ‘subir’라는 동사의 대칭으로 번역함으로써 말장난의 효과와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땀이요? 액땀이요? 땀이 아니라 툼이었어요. (베네치아에서 만난 사람, 250쪽)
Eviter? Eviter un grand malheur par un plus petit? je n’ai rien évité du tout, j’ai subi...

동형이의어에 의한 말장난도 번역에는 많은 어려움을 준다. 대부분의 경우 말장난의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설명이나 주를 통해 의미만을 전달하고 있다 :

남원 산내, 산속이라 산넨지, 산속에 내가 있어 산넨지... (달궁, 29쪽)
Sannael de Namwon, ça s’appelait Sannae parce que c’était dans la montagne ou bien parce qu’il y avait un ruisseau dans la montagne. (p. 31)
1. Sannae signifie soit «ruisseau de montagne», soit «dans la montagne».

그러나 다음의 예들은 원어에서와 같은 말장난의 효과를 살리지는 못했지만 비교적 의미 전달이 잘 된 예들이다 :

“섯다 좋아합니까? 앉아서 하는데 왜 섰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곶말이 셉니다... (‘잠적’, 120쪽)

- Vous aimez le seotta? Je ne comprends pas pourquoi ça signifie «être debout» alors qu'on joue assis.
- Parce que la chance ne se repose jamais...⁹⁾

“빨갱이들이 시를 접수했는데 집에 들어백혀 있잖나?”
“접수하다니, 시가 무슨 서류냐?” (『무자년의 가을 사흘』, 34쪽)
«comment resterait-il chez lui alors que les rouges ont pris la ville?»
- Pris? On prend une ville comme on prend un dossier?

다음의 예는 이름도 모르는 이모(혹은 고모)를 찾아 나선 두 여자의 대화 내용이다 :

「그럼 안면도의 이장들을 모두 찾아가야 하나?」
「우선 가까운 데서부터. 그런데 여긴 포구가 왜 이렇게 쓸쓸할까 저긴 공판장인 모양이다. 저기 간판에, 직장정화추... 쳇, 난 또.」
「뭘, 뭘 말이나?」
「어떤 외국마보가 개조심을 그 집 문패로 생각했다지 않아..」
「그래, 어디 개조심이라도 있나? 맹견주의는 일본사람 이름 같다야.」
「아니. 정화추하고 장민방이 저기서 아마 건져온 고기들을 위탁 판매하는 모양이다.」 (『달궁』, 28쪽)

- Alors, il faut aller voir tous les chefs de district de l'île d'Anmyeon?
- Commençons d'abord par ce qui est le plus près. Mais pourquoi ce petit port est-il si triste? Ça, là-bas, on dirait une coopérative. Et là-bas sur la pancarte, Comité... Corps... Ah non, je croyais.
- Quoi, de quoi parles-tu?
- Ça me rappelle un imbécile d'étranger qui avait pris la pancarte *Attention au chien* pour le nom du propriétaire.
- Alors, il y a *Attention au chien* quelque part? *Mengyonjuei, Chien méchant*, ça ressemble à un nom japonais.
- On dirait que M. Comité et M. Corps vendent du poisson à la commission. (*Talgung*, pp. 29-30)

아마도 공판장 입구에 걸린 '직장정화추진위원회'와 '직장민방위대' 현판을 보며 말장난을 하는 장면인데 번역에서도 그 묘미를 살려보려고 노력하였다.

9) 텍스트의 앞부분에 'seotta'가 'jeu de cartes'라는 주가 붙어있다.

다음의 예문은 수업중인 역사선생님에게 옆 반의 반장이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집으로 보내라는 전갈을 전하러 오는 장면으로 수업에 열중하던 선생님은 갑작스러운 방해에 장난스럽게 대응한다 :

“수업을 끝내고 학생들을 귀가하십시오.”

“물론이지.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귀가하신다.” (『무자년의 가을 사흘』, 16쪽)

“On vous prie de finir votre classe pour que Messieurs les élèves rentrent chez eux.

- Bien sûr. Après la classe Messieurs les élèves rentreront chez eux.”

이 문단을 번역할 때 어려움은 잘못된 존댓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말장난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선생님의 재치가 불어로 옮길 때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다. 말장난은 서정인 문학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살리는 것이 번역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불어로 번역할 때에는 ‘Messieurs les élèves’라고 써서 말장난의 효과를 프랑스 독자가 느끼도록 하였다.

마지막 예문은 교장과 학보사 주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에 대한 내용인데,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던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작가는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기념일들, 즉 5·16(오일육), 4·19(사일구) 등을 낯설음의 효과를 통한 말장난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그러한 효과를 번역에서 살려주는 힘들었다 :

복사한 글은 무슨 기념일에 부치는 글이었다. 이 기념일은 왜 해마다 말쟁도 많다! 오백십육이나 육백이십이나 백일은 국민적 각성을 일으키고 질서를 확립하고 단합을 공고히 하지만, 사백십구나 백십삼은 혼란과 분열을 일삼았다. 삼십일이나 팔백십이나 백삼은 오래되어서 만성일 테니 무난했지만. 교장이 구내 전화로 그를 불러, 검열, 안 검열 간에, 복사 안 복사 간에, 또 필자, 안 필자 간에, 기념일에 부치는 이번 호에서 빼라고 말했다. (『달궁』, 242쪽)

L'article qu'il a photocopié était un article pour un jour commémoratif. Pourquoi ce jour commémoratif pose-t-il des problèmes chaque année? Le 16 mai, le 25 juin ou le 1^{er} octobre alertent le peuple, consolident l'ordre,

resserrent l'union, mais le 19 avril ou le 3 novembre causaient toujours désordre et désunion, alors que le 1^{er} mars, le 15 août ou le 3 octobre¹ étaient passables, parce que ces événements étaient si vieux qu'ils étaient devenus historiques. Le proviseur l'a appelé au téléphone, et lui a dit d'ôter l'article *Pour le jour commémoratif*, sans se préoccuper de savoir s'il était censuré, photocopié ou signé. (Talgung, p. 305)

1. 16 mai 1961 : coup d'Etat de Park Chung-hee. 25 juin 1950 : début de la guerre de Corée. 1^{er} octobre : jour des forces armées. 19 avril 1960 : manifestations étudiantes. 3 novembre 1929 : soulèvement des étudiants de la ville de Kwangju contre l'occupant japonais. 1^{er} mars 1919 : mouvement d'indépendance contre l'occupant japonais. 15 août 1945 : capitulation du Japon. 3 octobre : célébration de la naissance de Tangun, fondateur mythique de la Corée.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작가는 말장난을 통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프랑스어로 번역할 때 이러한 작가의 의도를 완전하게 전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되도록 말장난을 그대로 살릴 수 있으면 좋지만 만일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주를 달아 간단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4. 반 복

우리말에서는 같은 단어나 표현의 반복이 허용되는 반면 프랑스어의 경우는 이러한 반복의 표현은 가급적 피해야한다. 그런데 『달궁』에서는 이러한 단어나 문장의 반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대부분 작가가 의도적으로 반복 표현을 쓰는 경우이다. 우리는 작가의 의도적인 반복인 경우 프랑스인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작가의 의도를 존중하려고 노력했다. 아래 예문에서 작가는 대화 내용의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현 사람'과 '환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우리말에서는 이러한 반복이 논리정연하게 보이지만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대명사로 대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

성현 사람 시중 받을라다가 성현 사람 시중을 들게 되고, 성현 사람 부릴라다가 성현 사람이 환자들을 부리게 되면 어쩔 것이요? 그야 환자도 마찬가지로

아니요? 환자 시중 받을라다가 환자 시중을 들게 되고, 환자를 부릴라다가 환자가 환자들을 부리게 되는 일은 없을랍디요? (『달궁』, 115쪽)

Si un malade voulait qu'une personne saine prenne soin de lui mais qu'il finissait par la servir, si le malade voulait faire travailler la personne saine mais que c'était celle-ci qui se retrouvait à faire travailler le malade, que pouvait-il faire? Ça revenait au même pour le malade, n'est-ce pas? S'il voulait être soigné par un malade, il finissait de toute façon par le soigner ; s'il voulait le faire travailler, ne pouvait-il pas y avoir des cas où un malade finirait par faire travailler d'autres malades? (Talgung, p. 138)

다음 예문에서의 반복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쓴 것이지만 프랑스어로 번역할 때 똑같은 반복을 한다면 이해 불가능한 문장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문장에서 의 반복이 갖는 의미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프랑스어 독자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문장이 되도록 번역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첫 번째의 프랑스어 번역에는 비교적 반복의 표현이 너무 많아 매끄럽지 못하다. 우리는 이 번역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대명사나 동의어로 바꾸거나 문장 차원에서 등가의 문장으로 바꿈으로써 반복을 피하여 두 번째의 번역문으로 바꾸었다 :

(...) 빼앗기고 있으면서 빼앗긴 것이 빼앗긴 것 같지 않았던 것은 빼앗은 사람들이 분명치 않아서였고, 빼앗은 사람들이 빼앗은 사람들 같지 않았던 것은 빼앗은 사람들이 선량했기 때문이라면, 내가 빼앗긴 것을 빼앗김으로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의 선량함 때문이었다. 빼앗긴 것을 빼앗긴 것으로 깨닫지 못하면 또 어떤가? 빼앗긴 것이 어차피 좋은 것이 아닐진대, 빼앗긴 것을 빼앗긴 것으로 보지 못하는 것 또한 복이 아니라! 빼앗긴 것을 빼앗긴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빼앗긴 것은 이미 빼앗긴 것이 아닐 것이고, 빼앗은 자가 분명치 않으면 빼앗은 자와 빼앗긴 자의 구별이 없어지고, 빼앗긴 자가 빼앗은 자와 같아질 수 있지 않으랴! 빼앗은 자와 빼앗긴 자가 같아지면 무엇이 좋으냐? 둘 중 어느 하나에게만 좋으냐, 둘 다에게 좋으냐? 빼앗고도 빼앗은 것이 아니니 빼앗은 자에게 좋고, 빼앗기고도 빼앗긴 것이 아니니 빼앗긴 자에게 좋다. (...) (『달궁』 61 쪽)

Si je ne me rendais pas compte qu'on me déposédait, c'est parce que je ne savais pas clairement qui le faisait. Si les gens qui me déposédait n'en avaient pas l'air, c'était parce qu'ils étaient bons. Si je ne ressentais pas cela comme une dépossession, c'était à cause de leur bonté. Mais alors,

qu'est-ce que cela faisait, si je ne ressentais pas cette dépossession? Comme il n'est jamais bien d'être dépossédé, ne pas considérer comme une dépossession le fait d'être dépossédé n'était peut-être pas une mauvaise chose. Si je ne considérais pas comme une dépossession le fait d'être dépossédé, ce ne serait plus de la dépossession. Si les personnes qui me dépossèdaient n'étaient pas clairement identifiables, il n'y aurait pas de distinction entre celui qui dépossède et celui qui est dépossédé, et il serait possible que celui qui est dépossédé devienne identique à celui qui dépossède. A quoi servirait-il que celui qui dépossède devienne identique à celui qui est dépossédé? Est-ce que ce serait bien pour l'un ou pour l'autre seulement, ou bien pour les deux? Ce serait bien pour celui qui dépossède parce qu'il dépossèderait sans en avoir l'air, et ce serait bien pour celui qui est dépossédé parce qu'il ne ressentirait pas cela comme une dépossession.

Si je ne me rendais pas compte qu'on profitait de moi, c'était parce que je ne savais pas clairement qui le faisait. Si les gens qui me dépossèdaient n'en donnaient pas l'impression, c'était parce qu'ils étaient bons. Si je ne ressentais pas cela comme de l'exploitation, c'était à cause de leur bonté. Mais alors, quelle importance, si on ne ressent pas cette privation? Comme il n'est jamais bien d'être dépossédé, il vaut mieux ne pas s'en rendre compte. Si on ne s'en rend pas compte, on n'est pas dépossédé. Puisqu'un profiteur n'est pas clairement identifiable, on ne peut pas le distinguer de sa victime, et sa victime peut devenir un profiteur à son tour. Mais quel intérêt? Est-ce utile pour l'un des deux ou pour les deux? Pour les deux, car le profiteur n'en a pas l'air, et sa victime ne ressent pas cela comme une dépossession. (Talgung, p. 71)

5. 외래어 사용 회피

서정인은 우리의 전통 문화 뿐 아니라 우리말에 대해서도 애착을 갖고 있는 작가다. 그의 이러한 애착은 『베네치아에서 만난 사람』으로 수상한 김동리문학상 수상소감에서도 잘 나타난다 :

(...)저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저가 지금까지 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불학무식하고 나태해서 별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한 일, 그리고, 선생께

서 그렇게도 거대한 기념비를 세우신 일,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말을 잘 쓰는 일입니다. 무릇, 말이라는 것이 잘 쓰기가 그렇게도 힘듭니다. 요즘, 엉뚱하게, 영어 공용어론이, 영어 조기교육론과 맞물려, 시비 찬반의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을 갖고 닦는 일이 초미의 관심사인 사람에게는 우리말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이미 끝난 문제로,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새삼 문제가 된 것부터가 가공할 일입니다. (...)

이러한 우리말에 대한 애착으로 서정인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외래어의 사용조차 자제해서 한국어 식으로 바꾸어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작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한국어 식으로 바뀌어진 표현이 갖는 ‘낯설음’을 살려 번역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번역을 하면서 이러한 작가의 의도를 최대한으로 살리려고 노력하였지만 도착어로 옮겼을 때 우스꽝스럽거나 도착어의 독자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프랑스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달궁』에서 ‘텔레비전’에 대한 표현으로 작가가 사용하는 ‘백치상자’, ‘천치상자’, ‘멍청상자’(20쪽)는 문맥상 의미가 통하는 경우에는 ‘la télévision’으로 번역하지 않고 ‘la boîte idiote’, ‘la boîte imbécile’, ‘la boîte folle’(p. 19)로 번역하였다.

다음의 예문들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외래어를 쓰지 않고 한국어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작가가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외국문화에 대한 거부의 표시를 번역에서 살리지 못한 경우이다 :

“땅을 삽차로 파서 짐차로 실어와야겠습니다.” (『잡적』, 143쪽)

- On peut la creuser avec un tracto-pelle et la transporter en camion...

“문 밖에서 자동차 원동기가 소리를 내고 돌아가기 시작했다. (『치과의사의 죽음』, 173쪽)

On entendit ensuite un moteur de mobylette pétarder dans la rue.

“백 백분율 자살이 어디 있고, 백 백분율 사고사가 어디 있겠냐?” (『치과의사의 죽음』, 181쪽)

- Il n'y a pas de suicide à cent pour cent, et de mort accidentelle non plus.

“사람들이 얼음과자를 선호하거든요.” (『치과외사의 죽음』, 184쪽)

- Parce que les gens préfèrent la glace.

작가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트랙터’, ‘트럭’, ‘오토바이’, ‘모터’, ‘뿔센트’, ‘아이스크림’ 대신에 ‘삽차’, ‘짐차’, ‘자동이륜차’, ‘원동기’, ‘백분율’, ‘얼음과자’로 표현했는데 번역에서는 이 ‘낯설음’을 살리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예문은 번역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예문이다 :

“병이 안 들면 기적입니다. 암이고 후면결이고 다 후천성 재앙입니다.” (『잡적』, 142쪽)

- Si on ne tombe pas malade, c'est un miracle alors ! Le cancer et le sida sont de véritables calamités...

사람들이 사용하는 ‘에이즈’가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대문자에 의한 약자이므로 작가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후면결’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한 ‘낯설음’이나 ‘재미’는 번역에서 전혀 살릴 수 없었다.

결 론

서정인 문학을 번역할 때 부딪치는 어려움은 그의 예술적 전략에서 기인한다. 그는 소설의 예술성을 그 내용이 되는 이야기에서 찾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담는 언어 스스로가 구축하고 있는 어떤 질서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의 문체적 특성은 자유간접화법, 판소리체, 말장난, 반복 그리고 외래어 사용 회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번역을 하면서 이러한 작품의 문체적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작

가의 의도를 존중하려고 노력하였다. 자유간접화법은 문맥의 이해에 어려움이 없는 한 작가의 문체적 특성을 살려서 번역하였다. 판소리체의 문체는 ‘한’의 정서를 전달할 수는 없었지만 형식적이거나 운문의 형식으로 번역함으로써 운율의 맛을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반복의 경우는 프랑스어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가의 의도를 존중하였고 외래어의 우리말 식 표현으로 인한 문체적 효과는 거의 살려줄 수 없었다. 가장 어려운 문체가 ‘말장난’이었는데, 동형의 의어를 통한 말장난은 두 언어의 차이 때문에 살려줄 수 없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소설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주’를 붙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정인이 즐겨 사용하는, 자신의 고향의 언어인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는 아쉽게도 번역에서는 전혀 살려줄 수 없었다.

K C I

참 고 문 헌

- 김경희, 「한국 특유 어휘의 번역문제」, 『프랑스학연구』 17, 프랑스학회, 1999.
- _____, 「한국 소설 번역의 문제점 고찰 - 불어 번역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제41집, 한국불어불문학회, 2000.
- _____, 「한국속담 프랑스어 번역에 관한 고찰」, 『불어불문학연구』 제45집, 한국불어불문학회, 2001.
- _____, 「문화차이의 번역에 관한 고찰」, 『불어불문학연구』 제50집, 한국불어불문학회, 2002.
- 김근식, 「번역의 본질과 어학적 제의미의 전달문제」, 한국통역 대학원, 1985.
- 김민수 외,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3.
- 김우창, 피에르 부르디외 외 63명, 『경계를 넘어 글쓰기』, 민음사, 2001.
- 김종길 외,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민음사, 1997.
- 김효중, 『번역학』, 대우학술총서 103, 민음사, 1998.
- 서정인, 『달궁 하나』, 민음사, 1987.
- 서정인, 『베네치아에서 만난 사람』, 작가정신, 1999.
- 이인숙, 「은유의 번역 - 『달궁 하나』의 에피소드 소재목 번역을 중심으로 -」, 『프랑스학연구』 제 23권, 프랑스학회, 2002.
- 전성기, 『불한 번역 대조 분석』, 어문학사, 1996.
- 정기수, 「한국번역문학연구」, 『비교문학』 12집, 한국비교문학회, 1987.
- _____, 「번역문학, 무엇이 문제인가」, 『문학사상』 1994, 6.
- 최현무, 「문학작품 번역의 몇 가지 문제점-한국문학의 불어번역을 중심으로」, 『오늘의 문예비평』, 1995.
- 황현산, 「번역과 번역창작」, 『예술과 비평』 11, 1986, 가을.
- BARNWELL, K.,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translation*, Horsleys Green, England :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1980.
- CORDINNUIER, J.-L., *Traduction et culture*, Langues et apprentissage des langues, 1995.
- HURTADO, A.A., *La notion de fidélité en traduction*, Didier Erudition, 1990.

- LADMIRAL, J.-R., *Théorèmes pour la traduction*, Payot, Paris, 1979.
(Gallimard, Paris, 1994)
- LAROSE, R., *Théories contemporaines de la Traduction*, Presses de
l'Université du Québec, 1989.
- LEDERER M., *La traduction aujourd'hui*, Hachette, Paris, 1976.
- MARGOT J-C., *Traduire sans trahir*, L'Age d'homme, Lausanne, 1979.
- MOUNIN, G., *Les Problèmes théoriques de la traduction*, Gallimard, Paris,
1963.
- SELESKOVITCH D., “Traduire, de l'expérience au concept”, *Etudes de
Linguistique Appliquée* 24, Didier, Paris, 1976.
- SU, Jung In, *Talgung*, Seuil, Paris, 2001.



《Résumé》

Les problèmes de la traduction des œuvres de Su Jung In

KIM Kyung-Hee

Les problèmes que nous avons rencontrés en traduisant les œuvres de Su Jung In, *Talgung* et *L'homme de Venise*, tiennent à la profonde originalité du style de l'auteur. Son style peut se résumer à cinq grandes caractéristiques. Ces caractéristiques sont les suivantes : le discours indirect libre, le rythme quaternaire inspiré du *pansori*, les jeux de mots, la répétition et le non-emploi des mots d'origine étrangère.

Nous avons essayé de rendre ces caractéristiques dans la traduction française à chaque fois que cela était possible, pour permettre aux lecteurs francophones d'apprécier eux aussi le côté novateur de ses œuvres.

Pour le discours indirect libre, nous avons respecté le style de l'auteur dans la mesure où il n'y avait aucune confusion, mais parfois nous avons dû transposer en discours direct dans le cas où la compréhension aurait été trop difficile. Nous avons traduit en vers les passages écrits en rythme quaternaire de *pansori*. Quant à la répétition, nous avons choisi de respecter la volonté de l'auteur, à l'exception des passages qui ont été remplacés par des pronoms ou par des équivalents afin d'alléger un peu le style et de rendre ces passages naturels et compréhensibles.

Il est apparu presque impossible de rendre l'étrangeté que l'auteur donnait volontairement en évitant d'employer les mots d'origine étrangère. Le rendu du jeu de mots a été le problème le plus difficile auquel nous avons été confrontée. Il était impossible par exemple de rendre ceux qui jouaient des

homographies. Nous avons donc mis une note quand une explication nous a paru nécessaire à la bonne compréhension de l'œuvre. Nous n'avons pas pu rendre non plus toute la saveur du dialecte de la province Jeolla, le pays natal de Su Jung In.

주제어 : 번역*traduction*, 한불번역*traduction en français*, 서정인 Su Jung In, 자유간접화법*discours indirect libre*, 말장난 *jeux de mots*.

투고일 : 2003년 5월 15일

심사완료일 : 2003년 6월 16일

K C I